

동백꽃 필 무렵.



연출 차 영 훈
극본 임 상 춘

- 동백꽃 필 무렵 -

4	:	4	:	2
로맨스.		휴먼.		스릴러는 조미료.
동백을 좋아하는 좋은 놈, 나쁜 놈, 치사한 놈.		누구에게나 “엄마”는 있다.		장르는 휴먼로코. 스릴러는 거들 뿐.

동백꽃 필 무렵은,

"모니카 벨루치와 일용이가 뜨겁게 사랑하는 얘기.
근데 맨날 사랑만 하진 않는 얘기.
진짜 사람이 사는 얘기."

【 로맨스 】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다.”
여기, 과거 있는 여자 동백이로 얹히는 세 남자가 있다.
동백이 좋아한 좋은 놈, 나쁜 놈, 치사한 놈.
그리고 어느 집애나 문제는 있다.

치사한 놈 네 _ “우리는 사짜 부부다.”

부인은 변호사, 남편은 안경사.

차기 군수 노리는 야심가 남편 노규태와
남편 맞춤법 교정사 변호사 이지영.
“제발 내 맞춤법 좀 내비춰, 쯔!”

잘난 와이프 앞에선 몸도 맘도 작아지는 남자는
밖에서라도 대장노릇하고 싶다.
통반장, 상가번영회장 거쳐 군수까지. 오직 완장차기에 열 낸다.
집에선 하숙하듯 살고 노상 밖으로만 나돌더니 기어이 바람을 피우고.

윗집에 시부모 모시고 살며 미묘+팽팽한 전쟁만 9년 째.
그랬더니 남편 바람났고 급기야 술집여자라고?
어금니 깎 깨문 여자는 일단 자존심상 사태를 관망 중.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어도,
남 보기엔 참 알짜 같은 사짜 부부.

나쁜 놈 네 _ “우리는 셀럽 부부다.”

남편은 스타 야구선수, 열 살 연하 부인은 (프리랜서)모델.
남편 종국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딸 바보로 활동 중.
아내 제시카의 “프리랜서” 부분을 정확히 말하면 그냥 SNS스타.
연예인과 일반인 사이에 낀 신종계급.

뭐 먹고, 뭐 입고, 뭐 샀는지 인생을 거의 생중계한다.
생면부지 남한텐 “부러워요~” 댓글을 하루 수백 개 받지만,
SNS용 인증샷 끝나면 앞에 있는 동반자와는 피차 할 말도 없는 둘.

급기야 제시카는 젓먹이 두고 웬 밀라노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니가 대체 밀라노에 가서 뭘 배우게? 너 사진 찍으러 가지?”
종국은 기가 차 물었다. 가상에선 #럽스타그램, 현실에선 #남스타그램.
별거하며 거의 남처럼 사는데...
부부의 위기에 종국의 징글징글한 첫사랑 동백까지 나타났다.
근데 급기야 뭘 하나 달고 나타났다.

들여다보면 안 부러워도
남 보기엔 참 그림 같은 관상용 부부.

착한 놈 네 _ “우리는 안 어울린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배기. 미혼모와 촌놈.
동네에서 술집 “까멜리아”하는 동백이만 보면 멜로.
시골 순경인 용식이만 보면 전원일기거나 수사반장.
여러모로 언밸런스한 투샷이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이 부조화.

“인생 드라마랑 달라요, 미혼모는 취향 없어요? 총각이면 다 땡큐래요?”
차도남이 이상형인 동백은 용식을 밀어내는데,
“원래 개도요! 진짜 귀여운 건 똥개예요!”
시골 개가 꼬리로 지 맘 표현하듯 성실히도 들이대는 용식.

동백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매일매일 끝없이 말해주고.
세상 편견에 눈치 보던 동백을 변화시킨다.
동백꽃 꽃말처럼 그 무엇보다 나만 사랑해주는 이 믿기지 않는 남자.
촌무파탈 황용식이는 동백이 인생의 기적이 된다.

언뜻 보면 안 부러워도
들여다보면 세상 다 가진 동백이와 용식이.

모두가 응원하게 될 이 촌스런 두 남녀.
행복해라, 동백이! 갖고 싶다, 황용식!

【 휴 먼 】

“누구에게나 엄마는 있다.”

고아, 살인자, 못난 놈, 호래자식에게도 부모는 있다.
그 사랑은 언제나 가장 진하다.

【 스릴 】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추적은 하지만 스릴러는 거들 뿐.
우리는 사람 죽인 놈이 얼마나 나쁘고 잔인한지는 안 보여줄 거다.
우리가 따라가는 건 나쁜 놈 한 놈의 폭주가 아니다.
비정상적 한 사람의 범죄일기 말고,
이 상황에 처한 인간다운 촌놈들의 대응에 집중!

악은 때로 우리를 결속시키고,
우리 주변 소심한 영웅들을 봉기하게 한다.
남을 살피는 아주 사소한 오지랖이 세상을 지킨다.

착한 사람들은 악마의 등장에 변하지 않는다.
나쁜 놈이 그들에게 뺏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똑같이 성실하고 진득하게 매일을 사는 걸로 악에 맞설 뿐이다.



각양각색 버무려진 세 커플의
생활밀착형 **치**정로맨스.
치사하고 **치**졸하고
근데 **치**열하게 사랑스런 진짜 로맨스가 펼쳐진다.

Character

밀림엔 사자만 있는 게 아니다.
캔디, 신데렐라, 왕자님, 실장님 말고도
주목받지 못한 변두리 수많은 동물들이 제 몫을 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다.

동백은 하마

의외로 풀을 먹는다. 온순할 것 같다. 느리다.
술집을 하지만 드세거나 산전수전 느낌이라곤 일절 없다. 연하고 포근하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물 밖으로 콧구멍만 내놓고 숨죽이고 살지만,
사실 밀림에서 제일 무서운 건 하마. 물에서 나와 들이받으면 끝.
맘먹고 뛰면 우사인볼트 보다 빠르다.
하마가 스스로 얼마나 위대한 동맹인 줄 알게 되는 순간, 밀림 평정이다.
동백은 아직 그걸 모를 뿐이다.

동백에겐 한방이 있다. 내놓고 걸크러쉬는 아니다. 고구마인 척 사이다다.
센 척 하지 않고 조곤조곤 자신을 지키고, 얌전히 강단 있고 원칙 있다.
동네 왕따라 열무 한 단 바가지는 수시로 쓰지만 한 번 따지지도 못한다.
“소심한 게 왜 나빠... 그래도 소심한 사람은 남한테 상처는 안 줘...” 하다가도,
동백이 손목 한 번 잡아보려 주접떠는 취객에겐
“근데요... 이 오징어땅콩 팔천 원예요, 제 손목 값은 없어요.
저는요, 술만 팔아요. 이 집에서 돈 내고 살 수 있는 건 딱 술. 술밖에 없어요.”
주책이 쏙 들어가게 못 박을 줄도 안다.

갈 곳 없는 알바 향미는 그저 갈 곳이 없으니 받아주고.
미혼모로 살면서도 애 아빠 원망은 안한다.
그래도 그 덕에 아들 필구 생겼으니 통 치고도 남는다고 웃고 만다.
소란스럽지 않게 독립적이고 담담히 제 길을 간다.
내 팔자는 내 소관. 내 팔자가 못 되도 내 탓, 잘 되도 내 덕이지,
팔자란 게 남이 폄대 말아먹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니 생전 남 탓하지 않는다.

처연하거나 청승맞은 구석이라곤 없고 차라리 천진하다.
살짝 멍한 건데 괜히 분위기 있어 보인다. 똑똑하진 못해도 현명하다. 잘 웃는다.
남 보여주기 위한 행복이 아니라 남이 뭐라든 행복할 줄 안다.
내내 세상의 불친절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동백은 다정하다.
다정은 공짜인데, 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좀 다정하고 싶다고 말한다.

술집 “까멜리아(동백)”한다고 그냥 동백이로 불리는 이름 없는 여자.
제대로 대접 받아본 적 없어도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제대로 사랑 받아 본 적 없어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쉬운 편견 속에 살지만, 누구라도 동백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조금 호구여도 괜찮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봐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녀는 결코 가녀리지 않다. 사실은 배포도 마음보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용식은 불곰

단순, 순박, 솔직, 우직, 용맹, 충직, 무데뽀. 정의로운데 대책은 없다.
동네 파출소 순경으로는 이만한 적역도 없다.
지적허기가 좀 있어서 별 쓸데없는 책도 많이 산다.
이상형도 다이애나비. 기품 있고 지적이고 괜히 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좋다.

기왕이면 몸으로 뛰는 007보단 머리 쓰는 설록홈즈가 되고 싶지만
결정적 상황에 가스총 보단 몽키스패너를 먼저 쥐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머리는 그다지 좋지 않지만, 행동은 누구보다 빠르다.
남들 몸 사리고 계산기 두드릴 시간에 용식은 일단 뛰어들고 본다.
남자들에게겐 아는 형 삼고 싶은 남자. 여자들에게겐 알수록 섹시한 촌놈.

되게 촌스럽고 투박하고 때론 남부끄러운데,
뭔가 허를 찌르는 섹시함이 있다. 예상치 못하게 훅 들어온다.
그간 드라마 속 실장님, 이사님, 팀장님들이 던져왔던 강속구와는 또 다른
뭔가 투포환 같은 맛이 있다. 세상 단순하고 천진한 나무꾼 같다가도
시시때때 울버린의 섹시함이 튀어나오는 촌무파탈.

사람 등글어 보이지만 푸우도 곰이다. 꿀단지 뺏으면 큰일 난다.
용식의 꿀단지는 동백. 동백이 건들면 다 죽는다.
눈이 돈 곰에게 “안 돼! 용식이 안 돼!”를 외칠 수 있는 건 오로지 동백뿐.
열여덟에 보온도시락으로 은행 강도도 때려잡은 통제 불가 센 놈이지만,
동백에게만은 쫄보 중의 쫄보. 곰돌이 중의 곰돌이.

이 동네에서 동백에게 말 높이는 사람은 용식뿐이다.
일부러라도 용식은 절대 말 안 놓는다.
내가 내 여자를 귀하게 여기면 남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용식이 그렇게 떠받드는 동백을 사람들도 다시 보게 되고,
동백 스스로도 자신을 새로 보게 된다.

용식의 관점은 언제나 달랐다.
고아에 미혼모인 동백이. 남들은 다 박복하다고 혀 차도,
용식만은 동백에게 당신 억세게 운 좋다고 말한다.
그 상황에 필구 그렇게 잘 키우고 자영업 사장님까지 된 건
대통령이 표창 줘야 될 일이라고. 딴 사람 같으면 진작 나자빠졌다고.
알고는 세상인심에 자꾸 바람 빠지는 동백의 바퀴에 계속해 힘껏 바람을 불어넣는다.
용식이식 촌놈의 관점은 동백꽃 피게 하는 거름이 된다.

초식남, 차도남, 소금남, 촌데레의 홍수 속에 출전한 아리랑 볼 같은 남자.
뭐든 진짜는 통한다. 용식이가 좋다면 진짜 좋은 거다.
용식이가 지킨다면 목숨 걸고 지키는 거다.
용식에게 한 번 예쁜 여자는 죽어도 예쁜 거다.
동백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가 얼마나 예쁘고 훌륭한 사람인지 매일 말해준다.
동백을 고개 들게 하고 동백을 변화시킨 건 결국 용식이다.
누구라도 용식을 만나면 정말로 아름다워 질 수 밖에 없다.
1가구 1용식이 시급한 참 희귀한 남자다.

종국은 류마

겉보기엔 그럴싸하다. 대외적으로 간지 나고 잘 나간다.
종국은 메이저리거까지 될 뻔한 스타 야구선수다.
근데 알고 보면 애매하다. 맹수라기엔 사자 급은 아니고, 과는 고양이과다.

꽤나 겁 많고 적당히 치사하고 소심하기도.
어떤 면에선 지극히 인간다워서 너무 욕하기도 뭇한 필구의 친부다.
피는 당기는데 또 손에 쥐고 있는 건 잃을 수 없다.

열 살 연하 모델 와이프랑 속도위반으로 결혼했고,
딸바보 아빠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중이다.
속사정은 골병들고 있대도 어쨌든 남 보기엔 폼 나는 가정이다.

하필 이런 공교로운 시점에 첫사랑 동백이 그의 인생에 다시 나타났고.
더불어 여덟 살 아들이 똑 떨어졌다.
종국의 탈모가 시작됐다.

제시카는 공작새

공작은 깃털 발이다. 프리랜서 모델이자 강종국 부인이자 SNS 스타인 제시카.
그녀의 인스타 프로필에는 “공인” 딱지가 붙는다.
연예인과 일반인 중간쯤에 있는 신종계급.
이렇다 할 필모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닌데 웬만한 연예인보다 팔로우 수는 많다.

그녀의 온종일을 생중계하다시피 하기 때문. 제시카는 SNS중독이다.
뭘 먹고, 뭘 사고, 어딜 가는지 모든 걸 자랑한다.
그래서 그녀에겐 “#I'm Mrs 강종국” 타이틀이 매우 중요하다.

화려하고 아름다워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공작이지만 사실은 관상용.
그녀의 모든 게 관상용이다. 관상용 와이프, 관상용 셀럽, 관상용 인생.
공작은 결정적으로 날지를 못한다... “예쁜 건 그냥 보는 거야...”

정말로 예쁜 게 다가 되어 버린 어쩌면 짝한 여자.
그녀에게 SNS는 산소호흡기다. 이거 떼면 죽을 수도 있다.
동백이 남이 뭐라든 행복한 인생을 산다면
제시카는 남 보기에 행복한 인생을 사느라 외롭다.

규태는 개

규태는 동네 오만 일에 다 짓고 싶다. 다 참견하고 싶다. 완장차고 싶다.
여기 뺄쭉 저기 뺄쭉 얼굴 디밀고 다니며 동네 유지이자 훈장 노릇을 한다.
질투 많고 편 가르기 좋아한다. 당신 누구 편이냐고 끄떡하면 잘 묻는다.
기분파라 “내가 노사장 아주 존경해”란 소리엔 돈도 냅다 잘 꺼준다.
남한테 좀 특별한 대접 받는 걸 유독 좋아한다. 그거 안 해주면 매우 유치해진다.

그래서 동네에서 유일하게 동백이네 술집에서 시바스리갈 사 먹는 규태에게
오징어땅콩 서비스 한 번을 안 주는 동백이 꽤심해 자다가도 벌떡 깬다.
유일한 양주손님인데다, 급기야 규태는 동백네 가게 건물주.
근데도 동백은 능글대는 규태에겐 더 알짬이 없다.

저는 안경사고 부인 이지영은 변호산데,
우리는 사짜 부부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결혼 구년 짜지만 아직 애는 없다.
일부러 안 갖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부인 앞에 서면 몸과 맘이 작아진다.

규태는 부인에게 열등감이 있다. 부인 보란 듯이 꼭 차기 군수가 되고 싶다.
그러다 국회의원을 나간대도 동네 사람들이 꼭 다 저를 뽑아줄 것 같다.
혈통 있는 진돗개인 척 하지만, 그가 그냥 누렁인 줄은 동네가 다 안다.

지영이는 고양이

지영은 동네에서 가장 고학력이다. 제일 도도하고 똑똑하다.
동네 사람들은 별 시답잖은 대소사까지도 지영의 자문을 구한다.
이변호사님 얘기라면 곧바로 권위가 생긴다.
도도한 고양이 자존심상 애완견처럼 꼬리를 칠 순 없다.
배를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안달복달 동동댈 수도 없다.
지영의 방식대로 사랑했고, 지영의 방식대로 참는 중이다.

남편이 바람난 걸 알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저한테 마음 뜯은 걸 알고 있다.
동백과 규태가 바람이 아니라, 규태 혼자 난리 브루스인 줄도 다 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것도 자존심 상한다.
처음엔 고작 “술집여자”라는데 기가 찼다.
맘껏 무시하고 싶었다. 그런데 동백을 알고 나서는 자꾸만 동백을 보게 된다.

동백에겐 지영한테 없는 뭔가가 있다.
아홉을 가진 지영은 하나가 없어서 불행한데,
딱 하나밖에 못 가진 동백은 열을 가진 것처럼 산다.
지영은 조금씩 동백을 따라하게 된다.
지영의 진짜 비밀은 규태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다.
규태는 기억도 못하지만 지영과 규태는 고교 동창.
지영은 전교2등, 규태는 노는 오빠였는데 그때부터 혼자 조금조금 좋아했고
변호사 되고 맞선 들어왔을 때 심쿵했다. 물론 표정이야 도도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여자. 지영은 고양이처럼 매일 창밖만 본다.

향미는 미어캣

까멜리아 알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지 알 수가 없다.
월 계속 두리번대고, 월 멍하니 보는 것도 같은데 애 머릿속은 알 수가 없다.
뇌를 안 거치고 말을 하고, 별 생각 없는 걸 감추려고도 안 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향미 앞에서 입조심을 안 한다.
워낙 얇고 가벼워서 향미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깊이 듣지도 않는다.
이래서 좀 열외인 캐릭터. 누구도 향미를 어려워하거나 의식하진 않는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향미는 이들 각각의 비밀을 쥐게 된다.
언뜻 보면 밀림에서 아주 하찮게 보이는 미어캣이지만,
결국 모두를 긴장시키는 존재가 되고.

머리는 나빠도 직관적 촉을 가진 쥐새끼 비슷한 인물.
절대 미어캣을 얕보지 마라. 그리고 비밀을 들이지 마라.
미어캣에게 비밀을 들키면 정말로 미치고 팔딱 뛰게 된다.

덕순은 수달

용식의 엄마. 평생 부지런히 조개를 줏다.
한 시도 안 쉬고 호도독대며 과부 혼자 삼형제 다 키웠다.
어린 과부일 때야 힘 센 놈 뺨 소리에도 눈물이 뚝 났지만,
지금이야 “백두계장 덕순”이라면 골목이 다 쫓는 카리스마 동네 짱이다.
할크러쉬 덕순의 리더십은 지갑에서 나왔다.
노성 억척 떨다가도 골목 사람들 힘든 일 있을 땐 남몰래 큰돈 쥐준다.

천성이 엄마라 지금도 배고픈 놈은 일단 잡아다 뭐든 먹이고 본다.
그렇게 동네에서 품은 애들이 동백과 동백의 아들 필구였다.
달고 달고... 맛고 맛아서... 안이 커진 무쇠 솔처럼 품이 넓었다.

호불호 확실하고 아닌 건 아니지만, 맞는 건 끝까지 맞다.
한번 내 사람은 끝까지 내 새끼다. 그런데 과연...

아들 용식이 동백을 좋아한대도 입장이 안 변할 수 있을까.

정숙은 매

어느 날 동네에 나타난 매. 정숙이 평생 어디서 떠돌다 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비밀을 간직하고 동네로 흘러와 그저 동백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는 동백의 엄마.

동백이 일곱 살 때 동백을 버렸고 이제와 치매 걸려 돌아왔다.
영혼이 사라진 눈으로 종일 동백만 보는 정숙.
그래서 정숙은 동백 근처에서 얼썹대는 모두를 본다.
누가 동백이 편이고, 누가 위협인지 동물적으로 간파하고 있다.

매는 결정적 순간 움직일 것이다. 누가 동백을 공격하면
반드시 발톱을 세우고 수직강하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엄마.
“내가 너 위해서 딱 하나... 뭐든 딱 하나는 해주고 갈게...”

필구는 용

동백의 아들. 필구의 여덟살 인생도 나름 치열하다.
필구가 동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저거 진짜 뭐가 되려고 저래.”
또래 중에 키는 제일 작지만, 제일 깡 세고 목청 큰 올챙이.
이제 겨우 뒷다리가 나왔다고 해서 개구리나 되겠구나, 오해해선 안 된다.

필구는 먼 훗날 한국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릴 때, 마지막 성화주자가 된다.
동백은 지금 전설을 키우고 있고, 필구는 영웅의 일대기를 사는 중이다.
종산 밀림에선 나름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이 필구다.

*이중 한 명이 죽고. 여섯이 용의자다.
이 여섯에겐 모두 그녀를 죽여야 할 이유가 있다.
근데 이들 모두에겐 죽어라 살아야 할 이유도 있다.
그 이유들이야말로 하나같이 치열하고 예쁘다.*

- Story -

비기닝 - “뭔가가 떠올랐다.”

이젠 꽃게가 살찌는 계절에야 지역뉴스에나 간간 오르내리는 지역, 종산.
3대 째 00식당이 골목마다 자리 잡은 고인 동네.
다들 그냥저냥 대대로 뿌리박고 살고 들고 나는 사람도 없다.
주민들 숙원인 먹자골목의 「게장문화단지」 지정은 수년째 지지부진.
근데 여기 주민들에겐 적당히 잊힌 동네가 된 게 차라리 안심이다.

“지금이야 종산하면 게장이지, 오륙년 전만 해도 종산하면 까불이었지.”

까불이. 종산을 괴담시로 만들어버린 그때 그 까불이.
육년 전. 종산에서 다섯 명이 살해됐다. “까불이”가 죽었다.
피해자에게 남겨놓는 메시지는 하나. “까불지 마.”
뭘 까불지 말란 건지 가타부타도 없이 단 한마디 “까불지 마”였다.
그래서 까불이라 불렸고 까불이 사건은 여태 미제.
땅값은 바닥을 쳤고 한철 장사로 먹고 살던 바닷가 오션 뷰 모텔들도 다 망했다.
IMF보다 혹독한 시절을 겪은 주민들이
이제야 “종산하면 게장”으로 신분세탁 좀 하려는데, 뜻밖의 천만 영화가 터졌다.
영화제목이 “까불지 마.” 육년 전 종산 연쇄살인사건 얘기였다.

영화 여파로 지역 경찰청 앞에는 경찰무능을 탓하는 시민단체 집회 등이 다시 재개.
동네가 다시 시끄러워진 판에 급기야 뭔가가 떠오른다.
마을 유일의 호수, 종산호에서 젊은 여자의 사체가 떠오른 것.
그것도 마지막 희생자가 떠오르던 방식 그대로.
사체 신원을 가장 먼저 알려준 건 손목에 차고 있는 게르마늄 팔찌.
동네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팔찌였다.

여자 - “게르마늄 팔찌를 찬 여자”

그 여자가 나타난 건 꼭 육년 전.

게장골목 끄트머리 애물단지 가게. 뭘 해도 족족 망해나가는 흉물스런 건물.
애초에 건어물 창고용으로 지어 창문도 없고 관리가 안 되니 갈수록 거무죽죽해졌다.
그러니 수년 째 더 가게가 안 나갔고 거의 휴가가 된 그 자리 땀에
상권이 다 을씨년스러워진다고 모두 걱정이었다.
그러던 점포가 드디어 나갔다고 했다. 외지인이 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설렘.
“수-퍼 말고 편의점. 수-퍼 말고”가 들어왔으면.
속셈학원이나 하나 생겼으면. 치과여도 좋을 텐데.
「동백(까멜리아)」 간판이 먼저 올라갈 때, “그래, 꽃집이 하나 생겨도 좋지!”했었다.

간판부터 올리고 이사 온 주인공은 30대 여자.
곰탕처럼 뽀얗고 웃는 듯 마는 듯 얇전한 얼굴.
마리아와 마돈나가 섞인 묘한 분위기.
장신구도 화장기도 없이 수수한데 게르마늄 팔찌만은 차고 있던 그녀.
향후 “동백이”로 불리게 될 이름 없는 여자다.

남자 - “범죄를 몰고 다니는 자.”

황용식이. 그가 가는 곳에선 필히 범죄가 일어난다.
은행에 가면 강도가. 택배기사를 하면 마침 그 집에 있던 도둑과 마주치고.
택시를 몰다가도 뺑소니를 보고. 노상방뇨 하다가도 데이트폭력을 목격한다.

그냥 보기만 했으면 용식이 엄마가 청심환을 장복해 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용식이 사전엔 이런 것들이 없다. 주저, 재고, 삼고, 신중, 겁, 계산 등이.
택시 몰다 뺑소니 잡으려 추격전. 잡고 나서 진압하며 “x만한 새끼”
소리 골백번 했는데 그냥 뺑소니 범이 아니라 살인강도 수배자였다.

어쨌든 그래서 용감한 시민상 받았다.
은행 강도는 보온 도시락 통으로 때려잡고 도교육감 표창 받았다.
왜 교육감이냐면 그때 용식이가 고2였다.
과잉 진압으로 강도 이가 나갔다. 용식 엄마는 이제 체념.
“대한민국에서 은행 강도 이빨해 준 여자는 나 밖에 없다.” 하고 말았다.
물론 경찰서에선 애가 이 등치에, 이 인상에, 손에 보온통을 쥐고 있었을 적에는
강도도 알아서 사태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열변을 토하긴 했지만.
애초에 용식이 사주가 일정 때 태어났으면 왜놈 다 때려잡았을 팔자랬다.

용식의 사고는 간단했다.

“그냥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봐가지고...”

뭘 보는 즉시 몸이 튕겨 나가는 걸 용식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

독수리 오형제 보며 감동해 울던 꼬마. 정의감 타고 났고 몸 사릴 줄 모른다.

그렇게 표창 몇 개 더 받았고 “특수 기술”이 인정돼 “기타 특채”로 순경 됐다.

순경 돼 서울 가서 동경하던 서울여자 만나서 살고 싶던 용식이었지만,

천성이 행동파라 사고 통통 치다 고향 종산으로 좌천되다시피 내려간다.

그런데 용식이 오자마자 까불이의 살인이 다시 시작되는데.

용식은 범죄를 몰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범죄를 끝내는 자였을지도 모른다.

배경 - 파문.

어쩌면 그녀는 역새발에 떨어진 풀꽃 같은 여자였다.

종산은 유독 여자가 득세하는 일종의 모계사회였다.

3대째 며느리 계장, 백두 할매 계장, 셋째 딸네 계장 등 대대로 여자가 실권자였다.

“주방을 차지하는 자, 천하를 얻는다.”

레시피를 아는 부녀자들이 대장이자 가장. 집안을 이끄는 경제주체다.

“달린 놈 낚박야 뭐해. 그까이꺼 주차나 시키지.”

남편이나 아들들은 주로 주차요원이라던가 홀 서빙을 맡았다.

이삿짐 트럭을 반도 못 채운 동백 여주인의 보잘 것 없는 짐 중 특이사항은 유모차.

‘애기 엄마구나...!’ 구경나온 여걸들은 속으로 안도했었는데...

이 동네 남자들은 횃집, 삼겹살집, 치킨집 다 마다하고

굳이 칼바람 부는 방파제서 콧물 반, 술 반으로 술 마시길 제일 속편해 했다.

씨족사회 같은 이 놈의 동네. 동네 술파는 곳 여주인들이 죄다

“내 마누라 국민학교 동창”이거나, “처제의 아는 언니”거나,

“딸내미 학부형”이거나, 급기야 “장모 계원.”

그들이 간밤에 어디서 몇 시까지, 누구누구와, 뭘 애길 하며 술을 마셨는지.

마누라를 씹었는지, 첫사랑 회상 여부까지 다음날이면 온 동네가 다 알았다.

와이프 직속산하기관 같은 술집에선 마실 기분도 안 났다.

그러던 중 “동백”이 들어선 것이다.

동백. 종산의 뜨거운 감자가 될 동백...!

동백은 꽃집이긴커녕 술집이었다.

동네 최초의 본격술집! 심지어 창문 없는 술집!

거긴 동네 남자들의 탈출구가 됐고 금시로 동네를 평정했다.

오직 동백만이 종산의 중립지대. 누구라도 비밀을 털어둘 수 있는 곳이 됐다.

남자들이 삼겹살에도 소주 한 병을 안 시키고 술은 무조건 동백에 가서 먹으니,
주류 냉장고를 아예 찬장으로 쓰게 되는 식당들이 속출했다.
안으론 바깥양반 위치추적이 상시로 되던 호시절도 끝났다.
내 가게와 가정에 나름 치명적 위협이 된 눈엣가시 동백.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이었다.

이름 없는 여자.

“어이, 동백”

“야, 동백이”

“거기 개. 개 있잖아, 개. 동백인가 백합인가 개.”

“혼자 애 키우는 동백 개...”

종산의 볼트모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여자. 동네에서 동백이라 불리는 여자.
마을 유일의 창문 없는 술집 동백(까멜리아)의 여주인. 나이도 이름도 미상.
첨부터 거기 개였을 것 같은 여자. 아무도 동백의 본명을 모른다.
그저 처음부터 “거기 개”였던 여자처럼 육년을 살았다.

“이게 다 동백이 때문이다.”

그렇게 육년. 이제 동네에 뭘 일만 생겼다 하면 모두가 동백이를 찾았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진 것도, 동네 고딩들이 스쿠터 타다 벤츠를 긁은 것도,
이불집 아저씨가 간경화 진단을 받은 것도, 미상의 꿈초가 창고를 태운 것도,
일생 단 한번 담배를 물어본 적 없는 동백이 탓이 돼야했다.
동백이는 동네의 하수구가 됐고, 그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동백의 꿈. “그 말을 듣고 싶어.”

혼자 애 키우며 하루 벌어 사는 여자에게
꿈이 뭐냐 질문만큼 약 올리는 소리도 없겠지만, 용식은 눈치 없이 순진하기만 했다.

용식: 동백이씨는 꿈이 뭐였어요?

동백: 꿈이 뭐였냐가 뭐예요. 당연히 지금은 꿈 없을 사람한테 하는 말처럼.

꼭 지금도 꿈 있으면 좀 쪽팔려야 되는 것처럼...

동백이는 발그레 웃으며 여전히 꿈이 있다고 했다. 유독 작게 말한 건, “공기업...”
그것도 디테일했다. “철도청 공기업...”
그 중에서도 분실물 센터 직원. 정확히 그게 되고 싶다는 거다.

이 꼴 저 꼴에 속이 다치는 날.
동백이 여지없이 향하는 곳은 기차역 분실물 센터.
거기 들어가 한참 가만 앉아있다. 그리고 본다.
뭘 잃어버리고 다급히 뛰어드는 사람들. 직원 여자에게 통사정을 하는 모습들.
휴대폰을, 아들네 주려고 찢 꼴단지를, 우리 애 애착 인형을 꼭 좀 찾아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하는 장면들을 물끄러미 보기만 한다.
동백이가 분실물 센터 직원 자리에 앉고 싶은 이유는 하나.

동백: 그냥 거기선 다 그 말을 하잖아요. 뭐만 찾아주기만 하려는 그러잖아.
.....그... 그... 고맙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용식은 바로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속에서 뭔가 치밀었다.
화 같기도, 미안함 같기도 한 뜨거운 것이.

분실물 센터에선 그 여자가 최고라는 동백이.
최고 천사고 최고 은인이고 거의 구원자 급이라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두 번 세 번 인사를 막 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도 안 된다며 배시시 웃는 동백이었다.

사실 그녀는 살면서 “거, 미안하게 됐다”는 소린 더러 들어봤다.
사랑한단 소리야 뭐 술하게 들어봤다. 그런데 아무도 “고맙다”곤 안 했다.
아무도 그녀에겐 그 소릴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왔다.

동백: 사람들이 사는 게 징글징글 할 때 나한테 오잖아요.
만사 짜증나고 지쳐 있잖아요. 그니까 나는 웬만하면은...
사람들한테 다정하고 싶어. 다정은 공짜데, 서로 좀 친절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너무 막 해. 어떨 땐 너무 함부로고...
나는 가끔요, 그게 조금 그래요...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 여자, 동백.
그런데 처연하거나 찝찝하게 어둡지는 않은 여자.

히죽 웃을 땐 소녀 같고, 아들 필구와 싸울 땐 그냥 애 엄마인 사람, 동백.
그녀를 알수록 그녀를 응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참 사람 같은 여자.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뭉클하게 알려줄 여자가 우리의 동백이다.

총각 황용식이 다이애나비를 처음 본 날.

용식이가 암만 해도 안 되던 게 공부였다.
그래서일까. 지적 허기가 강했다. 말할 때 사자성어라던가, 영어나 명언 같은 걸
꼭 좀 섞고 싶은데 늘 애매하게 토시 하나씩 틀렸다.
이상형도 다이애나비다. 지적이고, 기품 있고,
뭔가 배운 냄새 물씬 나는 커리어우먼 스타일을 흠모했다.

근데 매번 흠모만 했지 연애는 못했다.
삼형제 중 막내. 남중, 남고, 직장도 남초인 용식이는 백치마초.
여자는 혼자서 계단도 못 내려오는 줄 안다.
무시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 거다.
구태여 에스코트하고 오버해 보호한다. 뭘 모르니 늘 과했다.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중병에 든 줄 알고.
여자가 울면 멘붕. 그 눈물에 사기도 오백만원 당했었다.
과한 매너와 여유 없는 안절부절. 그저 열심히만 하는 놈.
요즘 스타일은 아니었다. 근데 용식이가 하는 건 전부 다 진짜다.
재지도 않고 간도 안보고 용식이가 좋으면 좋은 거다. 진짜로 좋은 거다.

고향 오자마자 또 괜한 지적 갈망으로 시내 서점부터 먼저 간 용식.
거기서 현실의 다이애나비를 본다.
트렌치코트 입고 긴 손가락으로 긴 머리 쓸어 넘기며 책을 보던 여자.
용식이가 제 집 변기 앞에 붙여뒀던 명언이 뇌리를 때렸다.
“서점만큼 인간의 심성이 그토록 약해지는 곳이 어디 있는가?” -헨리 워드 비처-

그녀의 지적인 자태에 용식의 마음도 속절없이 무방비해졌다.
아무 책이나 집는 척을 하며 냇 놓고 그녀를 따라다니다 돌아서던 그녀와 부딪쳤고,
그녀가 용식에게 한 운명적 첫 마디는 **“대쓰 오케이.”**
곧바로 용식이 가슴에 큐피드 화살이 메다꽂혔다.
우뚝 굳어 있는 용식이 품에 안고 있는 책을 힐끔 보는 그녀.
하필 육아 대백과였고. 당황한 용식이 그녀에게 대뜸 한 역사적 첫마디는,

“저 총각입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곤 이해한다는 듯 묘하게 끄덕이고 가는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다음 말은 하지 말걸.

“진짜 완전 총각입니다. 아, 아니 그 총각이 아니구요, 아니, 그게요, 저기,”
용식은 그녀가 새 같다고 생각했다.

“자태가 새야, 새... 한 마리 학, 타조, 두루마기 같더라고...”

물론 두루미겠지만 여하튼 이날 부로 용식이 머릿속엔 온통 그녀 뿐.

그녀는 서점 건너편 건물로 올라갔다.

건물 2층엔 「이혼전문 이지영 변호사 사무실」 뿐.

역시 배운 여자! 급기야 이름까지 이지적인 이지영!

대쓰 오케이가 다가 아니었다. 지나가며 일본말로 통화도 한다.

용식이 생각에 틀림없이 몇 개 국어는 할 것 같았고

못 올라다 볼 나무 같아서 용식이 냉가슴이 시작됐다.

그녀의 정체.

그녀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며 직원 최향미에게 전화로 참하게 지시하던 일어는,

“마마가 시마이라면 시마인 거야.

오까네가 만땅이여도 겐세이는 안 받아. 그냥 오늘 샤따 내린다고 해.”

노규태 예약을 받지 말란 소리다.

그러곤 이지영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동백.

이지영 명패 앞의 이지영에게 내민 까만 명함은, 「동백 (까멜리아)」 동백이었다.

여기 사무장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지영은 그녀를 한참 봤다. ‘니가 동백이구나... 그 동백이.’

지영이가 동백에게 “눈가가 팽팽하시네요.”했다.

지영이 남편 노규태가 면세에서 1+1 아이크림 사서

100미리짜리 본품은 동백이 주고 20미리 사은품은 지영이 줬다.

소식 듣고 허겁지겁 들어온 사무장이 동백이를 내쫓다시피 몰며,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니까 쫘!” 하니까, 동백이가 풀죽어 말하길,

“외상값을 주셔야 피차가 대쓰 오케이죠...”

여덟 살 아들네 학교 외국인 교사가 돌아가며 학부모 상담을 한다고 했고.

ABC 왕초보 회화 책 사서 요즘 영어 공부하는 까멜리아의 “그 동백”이었다.

동백이 지킴이 1호 강크러쉬, 강필구(8세).

동백은 필구가 술집하는 엄마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이라도 당할까 걱정했지만,
필구는 진작 장래희망으로 커밍아웃을 해 둔 상태.
메이저리거가 돼서 올 엄마 백 평짜리 술집 차려 줄 거라고
대차게 말하는 여덟 살 상남자가 필구였다.

먹자골목 사는 애들 몇이 “니네 엄마가 동백이라며?”하고 시비를 걸면,
“동백이가 니 친구야?!”하며 곧장 상대의 코를 노렸다.
싸움에도 소질 없어 매번 얻어터져도 깡 하나는 인정.
끝까지 악착같이 달려들며 이 악물고 외치길,

필구: 올 엄마가 어때서! 니네 엄마는 콩국수 팔고! 니네 엄마 보험 팔지!
올 엄마도 그냥 술파는 거야! 그게 왜!! 그게 어때서!!!

어디선가 동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귀신같이 달려오는 필구.
참기름 집 주기 엄마에게 거의 머리채를 잡힐 뻔한 동백이를
눈에 불 뿜으며 구해내는 필구.

필구: 아줌마가 올 엄마 때리면요, 난 준기새끼 맨날맨날 때릴 거예요!
주먹으로 코 깨고요, 발로 삭 찢 거예요!
내가 하나 못 하나 봐 봐요, 꼭 봐 봐요!!

눈이 시뻘개지도록 눈물 꼭 참았지만, 동백이 앞에선 씩씩 울며 바람 따졌다.

필구: 내가 왜 엄마를 지켜야 돼! 엄마가 나를 지켜줘야지!!
나는 일학년인데! 나는 일학년인데!! 일학년이 왜 엄마를 지켜!!
동백: 누가 너보고 나 지켜 달래?!
필구: 나도 귀찮아! 근데 내가 엄마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씨...
동백: 왜!
필구: 나 빼곤 싹 다 엄마를 싫어하니까!
동백: (!)
필구: 세상에서 엄마 좋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나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엄마 싫어하고 괴롭히잖아!

그니까 내가 야구도 못하고 계속계속 지켜줘야 된다고!
어떨 때는 나도 막, 막 피곤해. 마음이 막, 막, 화가 나!

필구도 엉엉 울고 동백도 엉엉 울었다.

동백이 지킴이 2호. 할크러쉬, 장덕순.

집집마다 카드 값 나올 쯤이 되면 동백은 월례 행사로 잡도리를 당했다.
참기름집 준기엄마는 끄떡하면 까멜리아를 덮쳤다.
“까멜리아-8만 8천원” 부분에 분노의 빨간 줄 짝 쳐진 카드 명세서를 들고선.
우리 집 낭반에게 술 팔지 말래지 않았느냐,
돈 못 준다, 팔만 팔천 원 도루 뺏어내라, 카드 수수료도 떼지 말고 내 나라, 생짜고.
동백이는 몇 마디 대거리도 못하고 “그냥... 오만 원만 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멍청한 소리나 꾸물꾸물 해볼 때, 좌중을 가르며 익숙한 멘트가 들렸다.
시장통에선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그 소리.

“이게 뭘 개경우여?”

백두할매게장 앞치마 찬 덕순(상인 번영회장) 등장. 할미냄식으로 전세를 엮는데,

덕순: 만이천원짜리 골뱅이나 한 사라 시켜놓고,
대구밖엔 그저 애 손모가지 한 번 쪼물딱 대볼 궁리백이 읊는
니 집 칠푼이는 아주 기냥 순결 무죄구,
동백이만 천하의 호로 백여시자, 불구대천 잡년이여?
법치적으루나 상도덕적으루, 술장사가 술파는 게 죄가 다?
참기름: 술만 팔았는지 탄 것도 찌꺼기 팔았는지 알 게 뭐냐고.
덕순: (크게 실소)하이고! 종산바닥 꽃게가 웃겼다. 행여나 꿈을 깨서.

좀 떨어져 뽀죤하게 서성대는 준기아빠를 짹 훑으며 일갈하길,

덕순: 이 인물에 이 몸매에. 총각 시집을 가두 열두 번을 갔을 동백이가,
왜 저 짹이랑? (피식)애가 총 맞았어?
참기름: (순간 발끈)왜! 이이가 어때서!
덕순: 얼씨구, 금슬 조-네.
참기름: 아니 동백이가 회장님 딸이야, 매느리야, 진짜 맨날 왜 이러냐구!
덕순: 참기름 너 진짜 진실을 몰러이라? 손바닥이루 하늘을 개려.

집이 얼굴에 침 뱉는겨.

참기름: (남편 때리며 중얼)내가 왜 계장을 담그구 사나 몰러, 저노무 걸 장으
루 안 담구.

덕순: (모두에게)늬들 다 좌우지간, 쓸디없이 동백이 잼지 말어. 애 근들믄,
(눈빛 째)내가 장사를 못 하. 엉?!

앞치마 탁 차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는 덕순 꿈무늬에 붙는 동백이 살그머니 웃었고.

덕순: 분수통아, 한 삼만원어치나 팔구 말지, 팔만원을 먹두룩 왜 내비뒤.

동백: (히죽)회장님이요, 내가 살면서 친해 본 사람 중에 젤 높은 사람인 거
알아요? 난 학교 때 반장이랑도 못 친해 봤는데.

덕순은 동백이 인생에서 처음 가져본 막강한 뺨. 처음 생긴 내편이었다.

덕순도 밥집하며 홀로 아들 셋을 키워냈다.

젊을 적, 술국 한 대접 시켜놓고 몇 시간을 빼대며

덕순이 손 한 번 쥐어볼까 수작 떨던 놈팡이들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

동백이 사는 게 꼭 옛날 제 모습 같아 꼭꼭 챙겼다.

어떻게든 동백이가 동네의 일원이 되게 기어코 계도 끼워주고, 반상회도 참석시켰다.

돈에 악착같은 덕순이가 필구만 보면 무조건 잡아다 얹혀놓고

공짜 밥을 고봉으로 먹였다.

동백을 향한 덕순의 생각은 하나였다. “새끼 키우는 애미다.”

“지 새끼도 버리고, 지 새끼를 막 그러는 짐성만도 못한 것덜이 천지삐깔인데.

지 새끼 맥여살리겄다고 뭐라도 하는 애미는 장한 애미다. 토 달 것 없이.”

덕순과 동백 사이엔 끈끈한 유대가 있었다.

덕순은 골목에서 동백을 가장 아끼고, 진심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아들의 여자일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동백의 사칙 - “우리는 술만 판다.”

동백은 가난한 엄마, 애비 없이 키워 미안한 엄마이긴 했지만,

부끄러운 엄마는 아니었다.

까멜리아의 사칙은 “우리는 술만 판다.”

「티켓, 배달, 접대 일절 사절. 문의도 금지」를 분명히 붙여뒀고.

동백이 손목이라도 한 번 쥐어볼까 주접떠는 취객에겐 연하지만 강단 있게 일렀다.

동백: 이 오징어땅콩 팔천 원 안예요, 제 손목 값은 없어요.
저는요, 술만 팔아요. 이 집에서 돈 내고 살 수 있는 건, 딱 술.
술 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 동백이는 묵묵히 동백의 인생을 살았다. 필구만 있으면 되었다.

동백: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재수 없대요.
용식: 벨 미친, 어떤 주뎡이가 그 땀 소릴,
동백: 생긴 것도 딱 박복하게 생겼대요. 팔자 한 번 드럽대요....
근데... 다들 그니까는 나도 내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용식: 벨 개 같은 소리들을 왜 새겨듣고 앉았어요!
동백: 맞아요. 개 같은 소리였어요.
용식: 예?
동백: 나 재수 있어요. 나 복도 많아요.
땀 사람들한테 필구 없잖아요. 필구는 나만 있잖아요.
나는 삼신할머니가 세계최고 김연아를 준대도,
떼돈 버는 GD를 준다고 했어도,
우리 필구랑 안 바꿨어요.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여잔데.
내가 왜, 내가 왜 재수 없어... 내가 왜...

그렇게 울음도 꿀꺽 삼켜버리고 배시시 웃는 동백이.

애초에 가족 없는 동백에게 필구는 유일한 가족이자 처음 가져본 가족.

나중에 필구가 결혼하고, 아내도 생기고, 애기도 낳으면

그때는 정말 남들처럼 그럴싸한 가족을 이루는 거니까.

단 둘 말고, 식탁에 순갈젓갈 몇 개씩 놓을 수 있는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충분하다고 정말로 생각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여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길 위의 풀꽃 같은 여자.

그녀를 알아본 용식이 말했다.

용식: 저도요, 다이에나비가 살아온대도요, 임수정이 나 좋다고 덤벼도요,
동백: 임수정이 왜 그러겠어요... 다이에나비는 뭐 좀빈가...
용식: 하튼 동백씨랑 안 바뀌요.

동백: 내가 자기 낀가...

용식: 그러니까 필구 장가들 때 기다리지 말고 미리 좀 행복 합시다.

쫄면에 있는 계란도요, 막판에 먹는 거 아니에요.

배고플 때 딱 먹어야 죽이지, 아꼈다 배부를 때 먹어봐야 맛도 몰라요.

나중 말고 그냥 지금부터 행복 합시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누군가는 그녀를 동정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여자, 동백.

덩치 값 못하고 골이 땡하도록 사랑스러워 버리는 남자, 용식.

둘은 서로의 인생에 기적이 된다.

동백의 세 남자. 좋은 놈, 나쁜 놈, 치사한 놈.

용식의 파출소 동료들은 벌써 언제부터 “거기”가서 환영회를 해준다고 성화다.

“까불지 마” 영화 때문에 파출소 앞엔 시민단체 등이 수시로 피켓 들고 서있는데,

여기 동료들은 개의치를 않는다. 소장이 옛날 그 사건으로 좌천된 인물인데,

하도 아는 척을 하고 일장연설을 잘 해서 다들 질려버린 거 같았다.

“까불이”얘기를 물으면 말 돌려서 자꾸 환영회 얘기만 한다.

종산에 왔으면 종산의 여왕님께 인사를 올려야 한다고.

근데 사실 용식은 여자 있는 술집이 불편하다.

자고로 술은 남자끼리 배틀 삼아 짹으로 먹는 거라 배웠고.

여자는 맨 정신에 봐도 바보로 구는데,

취해서 더 등신 같이 구는 모습을 동료들에게 들키기도 싫다.

그리고 얼른 칼퇴근 해야 할 이유도 있다.

어서 이지영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한다.

서점 언저리에서 얼쩡대며 살펴봐도 대체 이변호사님이 언제 퇴근하는 줄 모르겠다.

남자 사무장 하나, 여자 직원 하나. 직원 둘이 다 나와도 이지영님은 나오질 않는다.

오늘은 아예 명분을 만들었다. 문 닫기 전에 가서 아예 상담을 받아볼 계획이다.

팔 년 전에 큰형이 소 판 돈 떼인 얘기라도 해서 안면부터 틀 거다.

그런데 마침 안경사 노규태가 찾아왔다.

와서는 구태여 지가 황순경님 환영회를 해주겠다. 물론 “거기”서.

피하기 뭇한 자리다. 그냥 안경사가 아니라 동네 실세이자 유지.

높은 데 연줄도 많고 소장 사촌 사위의 숙부이기도 하다.

차기 군수자리 노리는 인물로 내외가 사짜. 남편은 안경사, 부인은 변호사.

‘변호사?’ 기회 봐서 서점사거리 이지영 변호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따라갔다.

동백에 있던 여자. 오늘만 사는 여자.

그렇게 간 “거기”가 동백.

반쯤 열린 셔터를 그냥 올리고 들어가는 일행. 늘 하던 일처럼.

안엔 아무도 없다. 미리 해둔건지 작년부터 그냥 둔 건지 알 수 없는

총천연색 크리스마스 조명이 촌스럽게 반짝대고.

7월에 멈춘 달력엔 하와인지 제주도인지 알 수 없는 야자수.

모든 게 부조화. 근데 또 묘하게 어우러진다.

또 안 어울리는 건 카운터에 있는 “ABC 왕초보 기초회화”

그리고 “That's OK”만 계속 써내려간 뽁뽁이.

소장이 대츠 오케이는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쓰고 자빠졌냐며 무심히 들춰볼 때,

“이게 왜 안 나와...”투덜대며 부엌에서 최향미가 나온다.

손에 든 부탄가스를 벽에 탕탕 후려치며.

다들 기겁을 해서 부탄가스를 뺐고, “향미야, 너 그러다 진짜 죽어.” 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향미에게 가장 많이 하는 소리다.

향미라는 쪼끄맣고 땅땅한 여자는 유독 규태를 보고 히죽 웃었다. “쫄보 왔어?”

20대라고 해도 그런가 싶고 30대래도 그럴듯한, 나이를 알 수 없는 여자.

소장이 용식이 귀에 대고 속닥, 향미에 대한 경고를 했다.

“라이타 조심해.”

향미에 대한 첫 설명. 향미는 도벽이 있다고 했다.

뭐 대단한 건 못 훔쳐도 뭐가 뒤흔 그냥 보이는 족족 지 주머니로 간다고.

이 가게. 첩첩산중이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애는 착해...” 한 마디는 보탰다.

도벽이 있는데 애는 착한 건 또 뭔지, 이 가게는 모든 게 다 부조화다.

‘저 부탄가스가 종산 여왕이란 건가?’

용식은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순하고 맘 넓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동백이”를 찾았다.

향미가 맥주를 짝으로 들고 나오며 “언니 빠마 말려 갔는데요,” 했다.

향미는 자연스레 소장 옆에 앉았다.

동백은 향미를 단지 홀서빙 알바로 들었다.

근데 향미는 갈수록 전직이 짐작되게 굴었다. 동백은 계속해 자제시켰다.
니 시급이 다름 아닌 7800원이란 걸 상기시켰다.

그 안에 손님상에서 병맥주를 손갈로 따야 되는 값이야 당연히 없지 않겠느냐,
시급 보면 모르겠느냐 타일러도 보고 혼내도 봐도 소용없다.
향미는 우물처럼 뿌연 맹한 눈으로 멀뚱히 반문할 뿐이었다.
공술 먹는 뽀나스도 없으면 내가 왜 시급 7800원짜리 여기 있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손님 자리에 낀 향미는 손님보다 지가 술을 더 먹었다.
술자리에서 향미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나 잔 뵈어.”
곧 죽어도 자작은 안 하고 꼭 누가 따라줘야 먹으니
소장이 향미 술 수발을 드는 게 익숙해 보였다.
향미는 잔이 비면 이제 말하기도 귀찮은지 그냥 제 잔 밑동을 상에 툭툭 쳤고,
소장은 까불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도 수시로 향미 잔을 채워줬다.

향미는 딱히 술시중도 안 들고 손님들 얘기에 리액션도 없다.
소장이 찢어놓는 오징어를 지가 족족 집어먹는다.
지 할 얘기 있으면 떠들고 아니면 만다. 손님들도 지들끼리 할 말이 많다.
동백은 이런 곳이다. 여자 나오는 술집이라기 보단,
동네 남자들의 비밀 창고 같은 곳. 그냥 마누라 눈치 안보고 얘기할 수 있는 데다.

혼자 폭탄 쪽쪽 비우는 향미에게 소장이 진짜로 걱정스레 말했다.
“애, 향미야, 너 진짜 그러다 죽어.” 향미가 말했다.

“원래 오래 살겠다고 철마다 개 잡아먹고 찢담배 피고 술 사리는 아저씨들이
교통사고로 즉사하더라고요.”

섬뜩한 소릴 발랄하게도 했다. 그것도 마침 오늘부터 찢담배 피우는 소장 앞에서.

“그리고 나는요, 이상하게 내가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 강 오늘만 살아요.”

라고 말할 때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규태.
규태가 슬쩍 가져가는 건 지 폰이 아니라 “No.1 LADY” 스티커 붙은 향미 폰이었다.

암튼 전부 다 이상한 데다.
용식이 여기 또 오고 싶진 않다고 생각할 때, 딸랑~ 운명의 종소리가 났고.

그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가 들어왔다. 머리에 커다란 파마 보자기를 쓰고.
트렌치코트를 벗으니 팔뚝만 시스루인 와인색 원피스가 드러났다.

‘종산의 여왕님이 나의 여왕님이었다.’

그녀가 학처럼 이지적인 자태로 탁 트는 김추자 노래.
손님들에게 오늘은 도루묵 알배기가 만땅이라 좋다고 했다.
손목에 끼워뒀던 머리 끈을 테이블 위에 자연스레 올려뒀고,
향미는 또 그걸 아주 자연스레 가져가 제 머리에 묶는다.

그래, 그녀가 동백인 줄은 알겠다.
근데 그녀가 변호사 이지영이라 반했던 건 아니다.
어제까진 대츠 오케이, 오늘은 이츠 오케이를 공부했다는 그녀가
삼개국어 능통자가 아닌 것도 알겠다. 그래서 반했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몇 날을 냉가슴 앓던 그녀를 드디어 가까이서 보고 있는 용식.
혼돈 속에서도 빠죽, “예쁜 건 팩트”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 다음 강타가 이어졌다.

동백: 필구 밥 먹고 나갔니?

향미: 밥 말고 짜파게티.

동백: 에이, 밥 좀 차려주지.

향미: 술이든 남자든 인생 다 셀프예요. 언니 남잔 언니가 챙겨야죠.

‘필구?! 필구는 또 누구란 말인가?!’

용식이 머릿속이 오직 그 생각으로 꽉 찬다.

어쨌든 동백은 법적 미혼이 확실했다. 그럼 대체 필구는 어떤 놈인가..!

필구란 놈을 찾기 위해 한동안 동네 사내들만 보면,

“근데 그 짝 이름은 뭐냐” 소리만 뜬금없이 하고 다닌 용식이다.

빠른 12와 빠른 82.

입 찐 소장이 내막도 모르면서 용식엄마 덕순에게 넌지시 그랬다.
용식이가 눈이 상당히 높다고. 요즘 공돌이는 여자가 뱅-호사라고.
사짜 며느리 보게 생겼다고. 덕순은 첩! 하면서도 내심 흥이 났다.
자꾸 춤을 추는 입 꼬리를 어찌질 못했다. 어딜 가든 뱅-호사 애길 했다.

“하! 미친 놈, 나 뽕 깡두 존 놈 다 보겠네,
핵교 땡길 때 노상 꼴찌서 시번째나 하던 게, 뽕-호사랑 지랑 말이나 통하?
딱 시마디 해보면 밑천 다 뽕이리지, 재가 저렇게 되나가나여,
저렇게 야심적이구 말여, 사내적이구 말여, 애가 저려,
그닝께 내가 저 꼴통을 낳고 사짜 매느리 이구 살게 생겼다닝께. 최, 나 환장하.”

아들자랑 한 번 완곡하게 하고 다녔다. 시장 사람들에게나 동백에게나.
용식이 속도 모르고 덕순만 신이 났다.
가게에서도 용식이 밥을 차려주곤 앞에 앉아 자꾸 뽕뽕뽕 말을 붙였다.
누가 있거들랑 일단 계장을 맥이러 와봐라, 엄마는 너 장가들면 분가시킬 거라는 둥,
별 소리를 다하는데 엄마 말은 귓등으로 흘리는 용식.
저 쪽에서 혼자 밥 먹는 남자애에게 자꾸 눈이 갔다. 필구다.
누군데 애가 혼자 저렇게 와서 계장을 야무지게 발라 먹느냐 물으니 덕순이 말하길,
“백두할때 계장 역사상 첨으로 무전취식하는 대단한 놈”이라고만 했다.

용식이 덕순에게 조금 더 시달리다 가게를 나왔는데,
필구가 앞에서 또래 둘과 싸우고 있다. 아니 거의 일방적으로 맞는다.
애가 맞으면서도 질기게 대들었다. 요지는,
나도 니네 엄마한테 참기름이라고 부를 거다, 울 엄마를 왜 그렇게 부르냐,
니네 삼겹살집도 소주 팔면서 울 엄마 술파는 게 왜! 뭐! 이런 거였다.

용식은 어릴 적에 떠돌았다.
어릴 때 용식도 동네 애들과 오지게 싸웠다.
과부 엄마와 과부 아들. 괜한 소문과 숙덕거림. 그때 덕순이 순대국을 팔았는데
과부가 순대국에 소주 파는 게 죄가 되는 시절이었다.
덕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시장통 아줌마들 좌판엔 모래를 뽕버리고,
애들은 패졌다. 쳐도 틀림없이 덤볐다.

이 때, 삼겹살집 뽕보 녀석이 필구를 발로 퍽 찼고 애가 나가떨어지는 걸
용식이 얼른 잡았다. 눈을 부라리며 “친구 패는 싸가지 없는 노무 새끼들은,
아저씨가 싹 다 유치장에 처넣을 거”라고 말하려는데,
말 끝나기도 전 애 둘이 용식이 부라리는 인상만 보고 울어 별 말도 못하고 끝냈다.

용식과 필구는 말없이 걸었다. 일단 쭈쭈빠는 우는 애 입에 물려 났다.
콧물 반으로 그걸 먹는 필구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났다. 읊, 꺽, 흐흡.
여덟 살 상남자 자존심에 울기는 싫다. 그것도 이 아저씨 앞에선 더더욱.
‘이 아저씨가 나 맞는 것도 다 봤다. 강하고 싶다. 쿨하고 싶다.’

근데 여덟 살이 그게 되는 나이인가.

꼭꼭, 울음을 먹을수록 더 이상한 소리만 난다.

용식은 못들은 척 해줬다.

용식이 암말도 안 했는데 묻지도 않은 걸 구태여 대뜸 말하는 필구.

필구: 개는 원랜 형이거든요?

용식: 뭐?

필구: 아까 나 여기랑 여기 발로 찬 애요.

개 원래 십일년 생이고 나는 빠른 십이거든요?

용식: (흠칫)뭐? 빠른 뭐?

필구: 그니깐 사실은 내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용식: 빠..른..십...이...? 그래... 아저씨는 빠른 팔이야...

용식은 이럴 때 여덟 살 남자애한테 필요한 게 뭘 줄 알았다.

그저 말없이 오락실로 향했다.

필구가 따라는 못 들어가고 손에 든 학원 가방만 발로 툭툭 걷어찼다.

오락실 안을 힐끔대면서. 테트리스 시그널에 홀려 눈이 조금 풀렸다 말았다 하면서.

주머니엔 삼백 원 뿐이고 엄마가 채워둔 손목시계는 학원 갈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때 용식이 팔세 필구 인생에 가장 멋진 장면을 선사해준다.

돈 만원을 썩 다 동전으로 연속 와르르- 와르르- 와르르르 바꾸더니,

그 금은보화같이 반짝이는 걸 소쿠리 한 가득 보이며 한마디만 툭 했다.

“너도 하던지.”

필구는 그날 학원을 못 갔다. 학원 땡땡이를 안 동백이 오락실로 쫓아왔다.

앞에 동전 탑을 쌓아둔 필구가 동네 애들 부러움을 사며 오락 삼매경이다.

동백이 정신 나간 필구 등짝을 후려쳤고, 필구는 억울한 듯 바락 항변했다.

“아, 그럼 저 아저씨가 만원어칠 바꿔줬는데 어떡하냐고! 만원치를 언제 다 하냐고!

내가 학원을 갈 수가 있겠냐고! 만원인데! 아, 만원인데!”

안 어울리게 숨은그림찾기나 하고 있던 용식을 정확히 가리키며 말했다.

8세로서는 나름 설득력 있는 이유였다.

동백이 경계+경멸의 눈으로 용식을 훑으며 말했다.

동백: 아니, 남의 애한테 왜 오락 밀천을 대줘요!!

진짜 이상한 아저씨 아니야.

용식: (기어드는)저... 총각인데요...

용식은 그녀에게 “이상한 아저씨”가 됐다.

엄마한테 목덜미 잡혀 끌려 나간 필구가 두고 간 학원 가방에 적힌 이름, 강.필.구.

‘반전의 연속인 나의 그녀에게는 애도 있다...!’

필구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

떠오른 말을 뇌를 안 거치고 뵈고 보는 게 매력인 향미가 동백에게 물었다.

아무도 대놓곤 안 물었던 그 것. 필구 아빠는 누구냐고.

동백은 향미라서 차라리 아무렇지 않게 진실을 말했다.

“맘만 먹으면. 지금도 매일 볼 수 있는 남자”라고만.

강필구 아빠 강종국. 케이블까지 치면 하루 종일도 볼 수 있는 남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슈퍼맨으로 활약 중인 딸바보. 그가 필구 친부다.

종국은 메이저리거까지 될 뻔한 야구선수다.

열 살 연하 모델과 속도위반으로 결혼했고 작년에 금지옥엽 딸 낳았다.

견지도 못하는 걸 데리고 팔도를 누비며 이상적인 아빠노릇 한다.

필구는 여태 돌고래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뭘 기억도 못할 돌 지난 지 딸에겐 돌고래 보여준답시고

삼복더위에 땀 빠질 거리며 헤벌쭙 싸돌아다니는 걸 보자니,

동백이 맘이 참... 뭐랄까. 두근댄다고 해야 할까.

떨려서가 아니라 울화로 속에서 큰 북이 둥둥 울렸지만.

그래도 니 덕에 필구 얻었다. 통 치고도 남는다 생각하고 마는 동백이었다.

그 와중에 재능 하난 물려줘서 필구가 야구를 씹 잘한다.

필구가 키 작은 것도 걱정 안 됐다. 종국이 늦게 커서 185까지 컸다.

필구가 야구 저서 기죽거나, 키 안 커서 고심할 때, 동백은 그저 느긋하게 말했다.

“너는 야구를 잘 할 수밖에 없어. 너는 키가 클 수밖에 없어.”

필구는 시즌이면 야구를 보고 거기 종국도 나왔다. 동백이 심장은 바싹해지는데,

필구는 아무렇게 않게 종국에 대한 얘기를 했다.

강종국은 이제 망필이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필구는 아빠에 대해 묻질 않았다.
속이 깊어서가 아니라 아주 관심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동백이 먼저 아빠에 대해 슬쩍 떠보곤 했는데 그 때마다 탄소리만 했다.

필구: 엄마는 오락기가 원래 없는 게 좋을 거 같아,
쓰다 뺏기는 게 좋을 거 같어?
동백: 너 요새도 오락실 들락거리지?
필구: 나는 쓰다 뺏기면 미치고 팔짝 뛸 거 같아. 잠도 안 올 거 같어.
근데, 원래 없다고 치면, 맘이... 음... 중간이야.
동백: 오락기 사달란 거야?
필구: 총재네 집은 이혼했거든. 그래서 개네 아빠 서울 갔대.
나는 총재보단 내가 난 거 같기도 해.

천성이 단순하고 맑다. 어디서든 빛 들어오는 구멍을 찾아내고야 마는 아이.
훗날 필구를 본 종국은 생각했다. 동백을 닮아 다행이라고.

슈퍼맨은 또 왜 돌아오나.

내일이 야구시합이었고 필구는 동백이 꼭 와주길 바랬다.
그래서 단정한 옷도 사고 목욕탕도 다녀오는 동백.
그런데 시장 통이 술렁댄다. 서울에서 방송국이 왔다고 했다.
또 계장 맛집 촬영이려니 했는데, “누가 왔다고?”
강종국. 강종국이 지 모교에 가있다고 했다. 목욕가방 든 동백이 뛰기 시작했다.

이번 주 촬영은 종국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딸 데리고 가는 거였다.
유모차에 애 태우고 꼬마시절 훈련하던 야구장을 돌며 주저리주저리 하는 종국.
괜히 맘이 좀 몰강해지려는데, 저 편에서 감정몰입에 초를 치는 무리가 있다.
야구부 꼬마들이 종국을 향해 레이저를 쏘고 있다.
촬영 한답시고 훈련장을 점령했고 야구부가 쫓겨났다.
대체로 짜려보기나 하는데 꼭 한 놈이 톡 튀게 거슬렸다.

등번호 3번. 종국과 같다. 그 녀석이 유독 매섭게 쏘아본다.
그것도 꽤 위협적으로 배트를 발로 탁탁 차며.
젤 쪼마난 놈이 제일 이글대는 게 기막히면서도 어쩐지 웃기기도 하다.
종국이 기가 차 입모양만으로 ‘뭘어-’했는데,

녀석이 어금니를 좀 우지끈 무나 싶더니 스텝들이 막는 걸 민첩하게 피하며
종국에게 직구로 뺏어온다. 계속 방망이는 들고.
그 포스에 종국이 멈칫, 저도 모르게 반보 후퇴를 하는데.
종국 코앞에 오자마자 곧장 야구모를 바닥에 패대기치며 일갈하길,

“여기가 아저씨 땅이에요?!”

둘 다 백넘버 3번. 베이비루스를 흠모하는 두 남자.
그게 강종국 강필구 부자의 첫 대화였다.
운동장이 아저씨 거냐, 우리 내일 시합지면 아저씨가 책임지냐,
짱짱하게도 대들었고, 종국은 어쩐지 선뜻 대꾸가 안 나갔다.
근데 이상하게도 푹,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래도 꼬맹이 판엔 사생결단 심각하게 따지니 예의상 웃음을 겨우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필구야!” 누군가 녀석을 부른다.
목욕 가방 든 애 엄마가 슬리퍼 차림으로 혼비백산 달려온다.
사색이 된 그녀가 젖은 머리 나부끼며 닥쳐올수록... 종국은 굳어가고...
새삼 필구를 보는 종국. 돌이 되었다.

동백은 돌려 말하지 않는다.

종국과 동백이 8년 만에 마주보고 앉았다.
크게 달라진 것은 종국이 핫핑크 애기 띠를 차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동백에게도 애가 있단 것. 무려 초등학생이다. 암만 어려도 여덟 살이다.
그보다 크다면 종국을 만날 때 동백이 이미 애 엄마였단 건데, 말이 안 된다.
게다가 급기야 애가 야구부다.
종국의 얼굴에 백팔 번뇌가 싹 다 스쳐 가는데...
동백은 끌고 돌리지 않았다. 그 오만상을 똑바로 뚫어보며 말했다.

동백: 응, 니 아들.

종국: (!!!)

동백: 정확히 니 아들이야.

종국: 너, 너, 아, 아니, 뭐 이런, 화, 확실해? 진짜, 진짜야?

동백: (뻘히 보기만)

종국: 아, 진짜냐고?!

동백: 너. 양아치구나.

종국: 하.... 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짓을, 어떻게 이렇게 골 때리는,
 동백: 뭘 모른 척을 해.
 종국: 뭐?
 동백: 낱을 줄.
 종국: (멈칫 보면)
 동백: 알았잖아.
 종국: (숨이 탁 막히고)
 동백: 너 나 알잖아. 내가 안 낱을 줄 알았어?

그래, 알았다. 오직 “가족”이 소원이던 동백이.
 엄마 아빠는 그렇다 치고, 난 어떻게 하다하다
 할머니나 삼촌, 이모 같은 것도 없을까 한탄하던 동백.
 빨리 결혼해 애 낳고 가족을 갖는 게 원이던 스물 둘 여자애.
 세상에 딱 저 하나 뿐인 여자였고, 그러다 처음으로 생긴 지 편이 종국이었던.
 지 자식 생기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버리지 않을 애가 동백이었다.
 종국은 이제 다음 걸 물어봐야 했다.

종국: 하..... 근데, 왜 여기야? 왜 종산이야?
 동백: (찾잔만 휘적대고).....
 종국: (급급)나 땀에? 아, 나 땀에?! 내 고향이라?!
 동백: 종산이 다 니 땅이야?
 종국: 뭐?
 동백: 왜. 겁나? 너 땀에 종산일 까봐? 니 발목 잡으려고,
 돈 잘 버는 너한테 좀 엉겨 보려고 여기서 죽치고 있던 걸까봐?
 종국: 그냥 말하라고. 왜 여기냐고. 진짜 진짜로 왜.
 동백: 강종국.
 종국: 뭐.
 동백: 쫓지 마. (종국을 가만히 보다...)
 (N)'먹고 살기 바빠서 추억이고 나발이고 곱씹고 살 팔자도 못 돼.'
 (말은)우리 남편이 너무 잘 해줘서 난 니 얼굴도 까먹었어.
 종국: (조금 놀란)결혼, 했어?
 동백: 그럼 내가 결혼도 못하고 니 생각만 하고 살 줄 알았어?
 종국: ...누가 그러래...?
 동백: 그니까 쫓지 말라구. 너.
 종국: 뭐.
 동백: 그렇게 대단한 첫사랑도 아니더라.

동백은 거짓말을 했다. 종국은 사실 대단하다 못해 징글징글한 첫사랑이었다.

예쁘면 다다.

동백이가 종국이 인생에 다시 나타난 시점은 참 공교로웠다.
사실 종국은 진짜로 애 혼자 키우는 슈퍼맨이었다.
종국의 아내는 슈퍼맨 촬영 날만 집에 잠시 왔다 간다.
적당히 애교스런 어린 아내 흥내를 조금 내다 앞 동으로 간다.
아파트 앞 동이 친정. 평소엔 거기 산다. 둘은 별거중이다.

모델인 아내 제시카는 만삭 땀 갈비뼈 라인이 망가진다고 출산을 당기고 싶어 하더니
애를 낳자마자 대뜸 밀라노로 유학을 가겠다고 상의가 아니라 선포했다.
애는 종국과 친정엄마가 있으니 2년 정돈 괜찮다고 못 박았다.
종국은 기가 막혔고 그녀의 밀라노 타령이 철없는 허세처럼 느껴졌다.

“니가 밀라노를 왜? 아니 대체 왜?
뭔 프로 모델도 아니고 패션 전공도 아닌 니가 대체 왜 밀라노?
이거 니 이름이랑 비슷한 상황인거지?
존라도 전주에서 나고 자랐으면서
이름은 제시칸 거랑 아주 비슷하게 느닷없는 거 아니냐고.
너 인증샷 찍으러 밀라노가지?”

계속해 제시카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다툼은 더 잦아졌다.
그래, 다 좋다 차지, 자기개발도 좋지만 하필 지금이라니.
종국은 아내가 꼭 모성이 없는 여자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아주 예쁘고 아주 이기적인 여자였다.
밥을 새 모이만큼 먹는데, 그나마도 풀만 먹고 딱 제 것만 차려 먹었다.
종국 밥은 종국이 알아서 차려먹었는데 아내가 음식냄새를 질색했다.
종국이 저녁을 먹으면 냄새 때문에 지도 먹고 싶어지니
집에서 밥을 먹지 말라고 했다. 운동선수인 남편에게.

지금껏 한 번도 종국을 편안하게 해준 적이 없는, 정말 예쁘기만 한 아내.
“너는, 너는 진짜, 와... 너란 애는 진짜, 아오, 진짜, 아, 예쁘면 다냐?”
좀 다른 맥락이어도, 예쁘면 다냐는 소리가 진심으로 나오게 하는 아내였다.

촌놈의 사랑법.

용식은 동백에게 첫눈에 반했고, 한 번 좋으면 그냥 좋은 거다. 끝까지 좋은 거다. 비록 그녀가 다이애나비 쪽은 아니었지만, 용식은 갈수록 더 동백이 좋아졌다. 알면 알수록 마음이 쥘쥘하고 지켜주고 싶었다. 그런데 가뜰스 단순 불도저 같은 놈이 동백을 너무 티 나게 좋아하니, 입방아에 오르내리기가 종산의 브란젤리나 수준. 셋만 모여도 소설을 만들어냈다.

동백이 입장만 곤란한 게 아니라, 용식이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있었다. 나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자꾸 동백이를 위해 쓰니 주민들이 용식에게 종산 보안관이 아니라, 동백이 보안관이라고 비꼰다. 규태는 내가 군수 되는 즉시 황용식으로부터 모가지라며 샘을 냈다. 동백이 용식에겐 땅콩서비스 같은 걸 은근히 잘 주기 때문이다.

좀 세련되고 트렌디하게. 안 좋아하는 척 뒤에서 챙겨주면 좋으련만, 용식은 그런 거 몰랐다. 규태가 까멜리아에서 추태 부리다 실수로 병을 깨면, “(이때다)어? 너 이거 주폭이야, 주폭! 까멜리아 출입금지가처분이야, 어?!” 가뜰스 병 깨고 놀란 놈을 주폭범으로 몰아 현장 연행해 버렸고. 동백에게만 은근히 바가지 씌우는 시장 아줌마들을 경제사범으로 몰기도 했다. “참 미시테리한 알타리네, 올 엄마는 이거를 분명히 한 단에 오천 원에 샀는데, 왜 동백이 알타리만 한 단에 육천 원이지? 이걸 부조리야, 부조리. 아주 사회악! 다들 경제사범 들어봤죠?” 다시는 누구도 동백에게 바가지를 씌우진 못했지만, 동백은 더 불편해졌다.

동백: 나 그냥 알타리 육천 원에 사고 싶어요. 그때가 더 살기 편했어요.
용식: 내가 지금 육천 원 땀에 이래요?
동백: 저 아줌마들, 내가 새 신만 사신어도, 빠마만 말아도 썩덕대요.
용식이 꼬시려고 그런대요. 가만있어도 맨날 동백이, 동백이, 동백이.
동백이 씹는 재미로 사는 분들한테 왜 꺼리를 줘요?
용식: 동백씨. 동백씨는 야채가게 아줌마 새 신 사면 알아봐요?
동백: 뭐요?
용식: 빠마부터 발끝까지, 왜 저이들이 징일 동백이만 쳐다보는 줄 알아요?
동백: (아주 지긋지긋)뭐요, 또 이빠서라고?
용식: (단호박)아노.
동백: (내심 당황)예?
용식: 이쁜 건 원래 빼박이고요,

동백: (내 그릴 줄)저 봐, 저 봐,
 용식: 저 사람들이 동백씨 행복해질까봐 겁나서 그래요.
 남덜이 동백씨 사는 데 디게 관심 있단 건요, 어찌됐던 동백씨가 잘
 낫단 거예요. 이쁜데 착하기까지 한 게, 팔자까지 좋아버리면,
 배 아퍼서 알타리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어지는 거라고요.
 동백: (실소)내 팔자가 좋아요? 동네 개가 웃겠네.
 용식: 메이저리그 갈 아들도 있고,
 동백씨 좋아 죽겠단 남자도 있어요. (자부심)급기야 공무원이에요.
 동백: (공무원 소린 왜 붙이나)좌,
 용식: 그까이꺼 딱 남편 하나 없는 건데, 그건요, 있어도 없는 게 난 놈들도
 썼다고요. 동네서 지가 얼마나 핫한 줄도 모르는데, 알타리 깎아주고
 싶은 내 맘을 어떻게 알겠냐고. 어떻게 나보다두 머리가 나쁘냐고.
 동백: 나 사학년 때까지 공부 잘했어요!
 용식: 근데 왜 내 맘 몰라요? 동네개도 다 아는 내 맘을 왜 너만 몰라줘요!
 동백: (화끈해 당황)하, 좌, 용식씨는 진짜 뭐, 기승전 고백이에요?
 아주 호시탐탐 고백할 생각만 하나봐!

수시로 차였다.

용식이랑 동백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덕순은 물론, 필구도 용식을 반대했다.
 그냥 싫어, 다 싫는데 엄마 좋아하는 게 켈 싫다고 했다.

게다가 정작 동백도 맘이 없었다. 첫 고백한 날 바로 차이기도 했다.
 용식은 동백이 스타일이 아니다.
 동백은 호리호리 세련되고 시크한 와인잔 같은 남자가 이상형인데
 용식은 얹어둔 뚱배기 같았다.
 동백에게 들이대는 방법도 좀 드라마 남주 같으면 좋으련만,
 그저 뚱심으로 밀어붙이는 거다. 그러니 동네에 소문만 커져가고.
 동백은 용식이 불러다 세워놓고 뚱 부러지게 말해야했다.

동백: 인생 드라마랑 달라요. 미혼모는 취향 없어요?
 용식: (비수)
 동백: 썬자 총각이 과부 종대면 뭐 다 게 탄 거예요?
 용식: (비수)
 동백: 황용식씨는. 결정적으로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용식: (발끈)동백씨 스타일이 뭔데요?!

동백: (바로)공유요!

용식: (비수)

동백: (왜 말이 없지?).....

용식: (어쩐지 고개를 푹 떨구고. 중얼)도깨비를 어떻게 이겨...
사람이 도깨비를 어떻게...

공유랑 용식은 많이 다르긴 했고 전의를 잃을 만했다.
그저 고개 푹 숙인 채 절레절레... 돌아서 가는 용식.
좀 너무 했나... 동백도 맘이 찢찢해지려는데, 가던 용식이 우뚝 서더니,
돌연 뒤 돌아보고 있는 힘껏 선전포고를 했다.

용식: 개도요! 알고 보면 진짜 귀여운 건 똥개예요!

동백: (어쩐지 두근...)

용식: 원래 봄벌에 얼굴타고! 가랑비에 감기 드는 거라고요!
나중에 나 좋다고 매달리지나 마요!

그리고 씹씹 고개를 쳐들고 가버리는 용식.
동백도 기막혀 허! 좌! 씹씹 돌아서는데,
어쩐지 가슴이 더 뛰던 쪽은 동백이었다.

신경 쓰이는 남자.

용식은 매일 까멜리아에 갔다.
용식의 필승전략은 “자꾸 보면 정 든다.”였는데,
동백은 “모자란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페이스가 말리고 있었다.
용식이가 모자라서 되게 신경 쓰이는 거다.
늦게까지 장사하지 마시고 차라리 점심장사를 시작해 보시면 어떠냐더니,
파출소 회식이고 조기축구회 회식이고 아주 기를 쓰고 손님을 끌어오는 용식.

근데 축구 끝나고 온 멤버들 면면을 보면 용식이만 새까맣다.
딴 남자들은 다 결혼해서 와이프가 얼굴에 선크림이라도 발라주고,
목에 수건이라도 감아줘서 땀 닦는데.
오직 이 남자만 시뻘겋게 얼굴 다 타서 땀도 소매로 막 닦는다.
그러면서도 침 튀기며 오늘 축구 어시스트 지가 했단 얘기만 하는 거다.

거기다 철없는 가오가 있어서 내복 안 입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한다.
동백이 앞에서 바지 걷어 지 종아리 보여주길 좋아했다.
남자가 무슨 내복이냐고, 자기는 까딱없단 걸 맨다리로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근데 그러면서 코는 훌쩍 거렸기 때문에 동백은 속으로 ‘으이구 저 등신...’ 했다.

거기다 향미는 호시탐탐 용식에게 돈을 꾸고 싶어 하는데,
남들은 다 콧방귀 끼는 향미의 “암 걸린 베프”사연을
용식이는 심각하게 들어주는 거다.
“향미 니가 참 의리는 있다”며 감정이입이라도 하는 거 같았다.
동백은 복어를 거칠게 뜯으며 용식이 하는 걸 가만 듣고만 있었다.

동백이 한 번 물었다. “용식씨 여자한테 돈 뜯긴 적도 있죠?”
그러면 용식은 하얗게 질려 곧바로 물었다. “미정이 알아요?”
인상만 강력계지 속은 거의 필구 수준이다.
세상 단순해 속이기도 너무 쉽다.
그런 용식이 동백이 지켜준다고 맨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거다.

동백이 필구 훈련 보내기 전에 가게에서 선크림을 발라주는데
축구복 입은 용식이 들어왔다. 시합 가기 전에 짜파게티 먹으러 왔단다.
동백은 선크림을 톱 주며 싸붙였다.
“가뜩이나 촌스러운데 더 새까매지면 누가 좋아해요?”
근데 용식이 싫단다. 동백에게 처음으로 한 싫단 소리였다.
선크림 안 바른단다.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냐고.

용식이 그 말을 하니까, 듣는 필구도 좀 심각해진다. 선크림을 손으로 좀 지운다.
동백이 용식에게 딱 한마디 했다. “앉아요.”
답답한 동백이 발라줘 버렸다.
용식과 필구를 나란히 앉혀놓고 똑같이 싹싹 발라줬다.
용식은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늘 한 세 발은 앞서나가 버리는 용식이 물었다.

용식: (얼굴 시뻘개 심각히)동백씨,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동백: (그 모습에 착잡한 한숨이)짜파게티나 드세요...

용식: 제가요, 오늘은 메씨가 와서 댐빈대도 뒤 골은 넣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잔뜩 고무돼 축구하러 가는데, 동백이 쫓아 나와 기어이 그 말을 했다.

동백: 저기요, 그리고 향미한테 돈 꺾주면,
용식: 안 그래도 이번 달 월급 나오면 제가 용통을 줘,
동백: 그 돈 꺾주면! 까멜리아엔 출입금지 줄 아세요!

하곤 팩 들어가 버리는 거다.
용식은 지가 동백이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필요한 내조를 은근히 해주는 건 동백이었다.

용식과 까불이.

까불이 영화 때문에 종산 경찰들이 또 바빠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새삼 종산 까불이 사건을 다뤘고,
재수사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용식이네 파출소 앞에서도 자꾸 일인시위하고 그런다.
용식에게도 일이 떨어졌다. 말이 공조지 별 대단치는 않은 잡일이었다.
과거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260미리 신 신는 사람 리스트 작성하란다.
사건 전후로 들고 난 사람 호구조사도 하랬다.

용식이 살펴보니 까불이는 6-5년 전에 총 다섯을 죽였다.
첫 희생자가 접대부였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부검해보니 성폭행은 없었다. 성범죄가 아니었다.
그럼 불특정 여성을 향한 혐오범죄인가 했는데 두 번째 희생자는 남자였다.
자장면 배달원이었다. 세 번째는 아파트 부녀회장,
네 번째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다섯 번째는 동네 피부관리사였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공통점도 없다.
모두에게 “까불지 마”라는 메시지만 남겼었다.

파출소장이 용식에게 자기가 따로 고이 모아뒀던 수사 자료를 줬다.
소장은 까불이 때문에 좌천되다시피 여기로 온 인물.
원래는 강력계에서 “정반반”이라 불리던 인물이었다.
과학보단 촉과 감으로 수사하던 옛 유물 같던 분.
어떤 건 귀신같이 맞추고 어떤 건 아예 헛다리였다.
승률이 딱 반반이라 정반반이라 불렸다.
소장은 까불이에 대한 남다른 집념, 집착이랄 게 좀 있었고,
별 관심도 없는 용식에게 여전히 눈빛만은 예리하게 말했다.

소장: 내 측에, 까불이 아직 여기 있다.
 용식: (안 듣는다. 지 할 말만)점심 계장으로 해요?
 소장: 이제 딱 육년 째잖어? 보라, 곰방 여섯 번째 희생자 나온다.
 원래 고런 놈덜이 이상하게 숫자에 집착을 하거던.
 용식: (옷 입으며 구시렁)맨날 계장만 먹재.
 소장: 요새 또 세상이 떠들썩하니까, 고놈 속에서 또 큰북이 뚱뚱 울릴 걸?
 원래 고런 놈덜이 은근히 관심병자거던.
 용식: 가게에 자리 베풀라고 할게요.(엄마에게 전화 하는데)
 소장: (김새서 짜증나는)아, 니네 엄만 뭐 가족 디씨 같은 거 안 해준대냐?

이때까지만 해도 용식은 까불이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물론 잡혔으면 좋겠지만 그건 마이애미 CSI 같은 분들이 잡는 거라고 말했다.
 까멜리아 벽에서 그걸 보기 전까진 그랬다.

고향오빠는 그러지 않는다.

집에선 와이프에게 기죽어 사는 규태는 나가선 대장노릇만 하고 싶어 했다.
 청년회장, 통장, 상인회장, 상가변영회장 등 감투라면 다 욕심냈고,
 그것들 거쳐 차기 군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동백이 들어오기 전까진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흠이 없었다.

문제는 동백. 규태는 동백을 갖고 싶다.
 당장 바람까지는 아니고, 일단 그냥 VIP대접이나 해줬으면 좋겠다.
 모두가 바라는 동백. 그 동백이가 규태에게 특별대우를 해줘서 좀 우쭐하고 싶다.
 사실 규태가 까멜리아에 손님을 제일 많이 끌어다주기도 했고,
 동네에서 유일한 양주 손님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번번이 친한 척 한 번을 안 해주고 사람 면 떨어지게 한다.
 파출소 순경 나부랭이한테 소주에도 계란찜 서비스를 주면서,
 시바스리갈을 시키는 규태가 친한 척 뭐 땅콩 같은 것 좀 없냐, 물으면
 “땅콩은 팔천 원인데요...” 소리를 꼭 붙이니 어떨 땐 약이 올라 죽겠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규태는 까멜리아 건물주다.

내가 군수 돼서 계장단지 지정시키면 땅값이 꺾충 뿔 텐데, 월세라고 안 뛰겠느냐,
 너니까 월세 안 올리고 있다만, 그 때도 내가 한결같이 호구일 진 모르겠다,
 사실 오빠야말로 호구 아니냐, 항시 마음과 지갑이 열려있다,

은근한 갑질 섞어 회유+협박을 해보는데.
동백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말이 없다.
여세를 이어 슬쩍 동백이 손등에 손도 툭툭... 얹어 보는데...

규태: 널 보면 꼭 고향동생 같으구 막 오빠 맘이 짠해 그래.
내가 뭐 탄 거 바래? 그냥 오빠 술 마실 때 땅콩 싸비쓰도 좀 주고,
옆에도 슬쩍 앉아보고 그러면 서로가 안 외롭고,
(손등을 툭툭 쓰다듬으며)의지 되고, 윈윈이고, 응? 응?

동백: ...저기... 사장님.

규태: 응?

동백: 이렇게 제 손잡으시면... 저... 가게 앞에 써 붙일래요...

규태: 뭘?

동백:노규태존이라고.

규태: (종고)치, 뭐, 노규태만 오라고?

동백: 아니요, 노키즈존 할 때 그 노규태요.

규태: 뭐?

동백: (기어들면서도 할 말은 하는)있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비서한테 짹짹
대다 혹 가셨잖아요.... 사장님... 군수 해먹고 싶으시잖아요...

규태: (당황해 더 큰소리)하! 너 지금 나 협박하냐?

동백: 제가 사장님 보면요... 고향 오빠 같고 짠해서 그래요...

규태: (빠직)뭐?! 니까짓 게 내가 짠해?
내가 뭐 대갓집 규수 손잡았어? 그래봤자 술집이나 하는 주제에,

동백: 그니까요... 술집 하는 제 손 말고요... 댁에 가서서...
저보다 훨씬 귀하고 깨끗한 사모님 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규태: 야야! 니가 이런다고 뭐 펌이나 비싸 보일 줄 알어?

동백: (용식의 말을 떠올리고)

용식: (N)동백씨! 약한 척 하지 마요! 동백씨처럼 대단하고 훌륭하고 신통방통
한 사람이 또 어딴다고 약한 척을 해요!

규태: 너는 그냥 딱 얼마짜리 같은 줄 알어? 꼴.값. 아주 딱 꼴값,

동백: (문득 용기 내)제가 꼴값이면, 사장님은 육...

규태: 뭐?!

동백: 육.....

규태: 육 뭐! 이게 진짜 은근히 사람 꼭지 돌게 하네?!
야! 너 왜 맨날 나만 차별해! 용식이 같은 것들한테 싸비쓰도 잘 주면서
왜 나는 땅콩도 안 줘!

규태가 한 대 칠 듯 손드는 시늉을 할 때, 웬일인 지 주방에서 튀어나오는 용식.

곧장 육중한 몸을 붕-띄워 날아 차기를 시도했고. 규태가 구석에 처박혔다.

용식: 이 \$%@\$%새끼가 어따 손을 올려! 감히 누구한테!!

별 같잖은 놈이 진짜 꿀값 육갑하고 자빠졌다,
남자도 못 되는 게 뭘 군술 한다고 깎치느냐,
핏발 세워 퍼붓는데 쓰러진 규태가 뭔가를 감지하고 소리를 썩 질렀다.

규태: (저도 놀란)야! 나 라미네이트 빠졌어!

용식: (이쪽도 흠칫했지만)

규태: 너 내가 가만 둘 줄 알어?!

현직 순경이 차기 군수를 쳐?! 너 새까 모가지야, 모가지!

용식: 나는! 나는! (협박할 게 없고)야, 나는!

동백: (뭔가 기대로 용식을 보고 있고)

용식: (뭐라도 하자, 분명히)나는! 너 절대 안 뵈아!!

용식이 현장 체포 됐다.

용식이는 동백이가 지킨다.

현직 순경이 차기 종산 대권후보를 때려눕힌 건 팩트다.
파출소 동료들도 난감했다. 합의를 종용해 봤지만
규태 쪽은 씨알도 안 먹히고, 용식은 사태 파악 못하고 여전히 분기탱천.
소식 듣고 쫓아온 덕순도 어쩔 도리가 없고,
이 꼴을 보고 있는 지영도 기만 막힌데.
모두가 도리 없을 때, 동백이 뛰어들었다.
웬 장부를 들고 뛰어 든 동백이가 그녀 일생에서 가장 큰 목청으로 외쳤다.

동백: 미투!

일동: (보면)

동백: 나 미투! 그거 하러 왔어요.

9월 28일. 천장 물세는 거 보러 와서 천장은 못 고치고 내 어깨만 두 번 만지고 감.

10월 14일. 관리비 줬더니 받는 척 하며 또 내 손 만짐.

10월 22일. 두부김치나 처먹을 것이지 두부가 동백이 속살같이 허엿다고 3번 말함.

등등, 디테일하게도 적어 둔 걸 열심히 읽어나갔고,
장내의 모두가 황당함에 멍하니 동백만 보는데,
용식이 소 눈에선 그만 닭똥 눈물이 뚝 떨어졌다.
제 일엔 맨날 곰 같이 참기만 하던 저 곰투가리 동백이가
세상 처음 씹씩대는 걸 보는 덕순의 가슴은 철렁했다.
‘둘이 정분이 나겠구나...!’

동백을 변하게 하는 남자, 용식.

용식이가 규태 라미네이트 부러뜨리고 경찰에 끌려갔다.
동백이는 이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
가만히만 있어도 온종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동백이다.
유부남과 총각이 동백이 때문에 싸웠단 소리를 듣기 싫다.
그래서 경찰서도 안 따라갔다. 경찰이 뭘 물어도 입 꼭 다물었다.

그런데 용식이기도 곰통이처럼 암 말을 안 한다.
규태가 동백이를 추행해서 그랬다는 정의로운 명분이 있는데,
그 짧은 애길 안 하고 고집스레 입만 딱 붙이고 있었다.
그러니 규태 주장대로 “가만있는 사람 괜히 때린 미친놈”이 됐다.
덕순이 등짝을 후려치며 다그쳐도 “그냥 내가 치고 싶어서 좀 쳤소!” 하고 말 뿐.

그래도 순경인데 설마 콩밥 먹을 일은 없겠지,
애써 용식에 대한 걱정을 떨치며 규태가 처박혀 부서진 상이나 좀 치우는 동백.
깨진 술병 들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동백은 그만 말을 잊지 못했다.

주방 안엔 동화가 펼쳐져 있었다. 빈 소주병, 맥주병마다 동백꽃이 가득.
어디서 이 많은 동백을 구해왔을까 싶게 동백 받이다.
동백의 고단한 삶으로 꽉 차있던 두 평짜리 주방이 꿈에서나 볼 천국이 됐다.

그리고 촛불 못 켜 케이크, 폭죽, 고깔.
용식이 숨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다 이 사단이 난 거다.
오늘은 동백도 기억하기 싫던 동백의 생일이다. 주민등록상 생일.
진짜 생일은 며칠인 줄 모르고 그냥 겨울에 태어나서 오늘.
고아원에 버려진 날이기도 했다. 그래서 더 생일을 안 챙겼다.

고아원에서 겨울에 태어난 애들을 한 번에 묶어

단체로 촛불을 불게 해줄 때도 동백은 불지 않았다.
버려진 날을 기념해 촛불까지 불긴 싫다. 그저 조용히 “나는 안 불어” 생각했다.
그런 동백에게 일생 처음인 주어진 나만의 케이크였다.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혼자 불을 붙였다.

「 생일 모르면 맨날 생일하면 되요.
내가 맨날 생일로 만들어 줄 거요.
동백씨는 너무 예쁩니다. 」

투박하기 그지없는 카드를 보다가 눈물이 뚝 났다.
용식은 끊임없이 말해줬다. 동백이 얼마나 예쁜 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지, 계속해 말해줬다.

동백은 죄인이 아니다, 부끄러울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사람이다,
다른 누군가라면 같은 환경에서 동백만큼 살아내지 못했을지 모른다,
동백이라서 이만큼 해내고 있다고 끝없이 말해줬다.
용식이 덕분에 동백에게도 자존감이란 게 조금씩 생겨났다.
늘 숙이고 다니던 고개를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용기 내 제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다.

촛불을 후 불고, 눈물을 뱉뱉 훔치고, 케이크 한 쪽을 한입 크게 먹더니,
우뚱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동백.
카운터 서랍 속 빨간 장부, 아니 치부책을 들고.
동백은 이제 미투도 외칠 수 있다. 더는 고개 숙이지 않는다.

하마는 각성을 준비하고 있고 불곰은 동백을 각인했다.
종국은 동백과 지 아들이 눈에 밝히게 되고,
규태를 비롯한 6인은 미치고 팔딱 뛰게 될 댕에 걸리게 된다.
향미는 돈을 쫓고 까불이는 동백이를 쫓는다.
이 와중에 동백의 엄마 정숙이 치매 걸려 돌아오고...
정숙, 덕순, 동백은 모두 엄마. 모정은 언제나 가장 뜨거운 사랑이다.

누구에게나 엄마는 있다는 것,
나쁜 놈은 착한 놈을 쪽수로 못 이긴단 것,
촌놈한테 중독되면 약도 없단 것을
뜨끈하게 말해줄 것이다.